1장 introduction of macroeconomics

거시 – market 간 상호작용에 focus

미시 – market 안의 특징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statistics ( 이게 뭘까) use

; D and S func equilibrium에만 focus 얼마나 그 점까지 수렴하는 지에 대한 focus는 미시에서 다루지 x – 역학을 다룸(dynamic)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

Business Cycle? (경기 순환)

; 국민 경제의 활동이 활발해져 높은 수준을 이루었다가 저조해져 낮은 수준을 이루고, 다시 회복되어 활발해지는 등의 반복되는 과정을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Adam smith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에 맡겨라

But 대공황 이후 이것은 통하지x

미국의 경제적 번영 속에는 과잉 생산과 투기 등이 만연했고 이는 결국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야기

대공황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 – Black Thursday, Blakc Tuesday

Financial system Firm

(상업 은행)

House holder Asset market(stock market, real estate)

(consumer)

Depositor (예금주; 돈을 거의 다 넣음) - 예금 Bank (회사, 정부, 집 소유주에게 대출) Firm(stock) ;저 firm은 은행의 자산이 됨.

Stock market이 crash되면서(주가, 부동산 자격 급락) 은행의 자산에 큰 타격

은행은 그들의 예금 부족.. – 파산

그 뒤로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 대출x – 소규모 회사 다 문 닫음 or 정리해고, 자본x

그 이후로 일자리 감소 – 이건 집 소유주들에게도 영향(노동자들이니)

소비자의 일자리가 줄어디니 소비력 감소 – 기업의 매출 감소

악영향의 순환

‘그 당시 대공황에 대해 여러 해석도 있고 음모론도 있습니다만,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대전 후 미국에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자금들이 미국의 자산들의 가치를 상승시켰죠. 특히 주식에 많은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식 값 뛰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주식을 사기 위해 몰렸고, 은행들은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사려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주식값도 한계가 있었고, 주가가 더이상 오르지 안을거란 생각이 확산되자 너도나도 갑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주가가 떨어지자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위해 담보로 잡았던 주식을 팔아치우려 했고, 주가하락을 가속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담보로는 대출금을 회수할수 없게된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하게 되고, 서민들은 피땀흘려 모아놓은 예금들은 사라지게 됐죠. 그렇게 대 공황이 시작된 겁니다.’

1929년 이른바 '검은 월요일' 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 폭락사태가 세계 대공황의 신호탄이 된 것은 바로 주식시장이 폭락함과 동시에 막대한 양의 돈이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1차대전 이후로 미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자 미국의 주식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대부분이 은행이나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도 앞다투어 그들이 가진 돈을 거의 모두 주식시장에 투자해 은행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국민의 자본 상당부분이 주식시장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의 붕괴는 말 그래로 재앙이었습니다. 검은 월요일에 시작된 주가 폭락사태는 단기간 내에 미국의 주가가 총 80 퍼센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100만 원이었다면 그 돈이 순식간에 20만 원 이하가 되버린 것입니다. 주가폭락으로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도 없으니 그 돈은 말 그대로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식시장에 대부분의 저축금을 투자했던 은행의 파산이었습니다. 1920년대의 미국은행들은 언급했다시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금을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이러한 은행에 저축된 저축금이 한 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에 각 은행들은 파산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은행이 붕괴된 상태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의 붕괴도 심각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자가 갑자기 멈췄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원할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할한 투자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같은 대기업이라도 주식시장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투자금이 없으면 붕괴할 수 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를 본 자본가들은 그 충격에 투자를 멈춰버렸고, 투자가 멈춘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는 파산선언을 하거나, 회사규모를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자 당연하게도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됬고, 실업자의 양산은 다시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다시 회사가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최부국이었던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자,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을 하고 있던 유럽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즉 미국경제가 붕괴되자 미국의 자본이 더 이상 유럽경제로 흘러들지 못했고, 이는 유럽의 경제붕괴는 물론, 전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나 삼성같은 중심기업이 붕괴하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케인스 ; 뭘 제시했을까

Aggregate demand!

H.H – Firm (둘 간의 관계에 집중)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면 어떨까?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기업들이 돈을 벌어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고용이 늘어나야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실시한 것도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Production and GDP

Market economy system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생산과 소비 경계 명확

전통사회에서는 생산소비 경계가 불분명 – 자급자족 ( 시장 경제가 도입되기 전이기에 )

재화 ( 누군가 원하는 가치 ) 생산 및 소비

Business Sector에 포커싱을 맞추고 봐보자.

생산요소

; 노동(노동자), 자본(투자자),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business sector에서 상품과 서비스로 변화되는 지 그 생산함수에 대해 연구해보자

Cobb – Douglas production func – 공부!

Productivity

A 가 증가한다? ( 똑 같은 생산요소에도 Output이 증가한다 )

반대는 감소

A의 기능은 뭘까? ( 생산성, 효율성, 첨단성 등등 ) -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MPl MPk에서도 A가 크다는 건 시작점이 크다는 의미… (함수 분석)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input – output table) – 산업 연관표

규모의 경제, 비경제

GDP 측정할 때 중요한 요소들?

Income? Expenditure, productivity – 이 각각의 접근 요소들을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GDI, GDE라는 것도 있지만 이는 결국 GDP와 유사

GDP is a ‘market value’ – 시장가치? – willingness to pay를 잘 보여주는 척도

Final goods – 최종 재화!의 시장 가격(중간재가 아니다.)

Farmer(200) – Factory(300) – Bakery(500) – Bread(1000) – 따라서 이 천원이 시장가가 된다!

얘네는 intermediate - 최종재에 어차피 중간재의 가치가 다 들어있으니 중간재를 gdp에 반영하게되면 중복되게 된다.

생산품을 취급 – 주택(housing)같은 건 stock으로 취급? Housing stock는 GDP에 반영하지 x

Housing service ( 이것도 GDP측정에 반영하는 value여야 한다. )

Housing value – capital value not consuming value

집 소유주도 월마다 rent비용을 지불? – 기회비용으로?

Imputed rent

집은 생산되는 재화는 ㄴㄴ , 세 내고 사는 것은 (거래)

Imputed housing? ; 질문!

Within a country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활동을 취급 ( 외국인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x)

GNP 와 GDP의 차이

GDP – 나라와 영토 안에

GNP – 국적에 관계

GDP가 보다 더 좋은 측정치로 사용된다.

Given period of time – 분기나 연별

GDP의 정의는 외워버리자!

Self employed business 의 비율이 많을수록 – 최저 임금이 높아진다?

The Labor Market!

다양한 노동 시장이 존재,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

Inflexibility – 하나의 특별한 법칙을 다양한 노동 시장에 쓰기는 어렵다..

But, we consider there is no inflexibility

하나의 노동 시장만 있다 간주